

20세기 초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자료 실태 고찰*

이 은 영**

- I. 머리말
- II. 자료 실태 고찰
- III. 연구 방향 모색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초 북간도로 망명을 떠난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한문학 자료의 실태를 고찰한 것이다.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그들이 남긴 한문학 자료가 매우 드물었다. 이는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자료가 희귀본임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연구 대부분이 독립운동, 종교운동, 교육활동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한문학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 상태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그들이 남긴 한문학 자료에 따라 문학적 방향과 문학 외적 방향에서 연구 방향을 간략히 모색해주었다. 따라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700)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문학 연구에 대한 초석을 놓아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 주제어

20세기 초,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한문학

I. 머리말

그동안 학계에서는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전후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망명을 떠난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한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그리고 다행히 정경주,¹⁾ 이희목,²⁾ 호광수,³⁾ 윤호진⁴⁾ 등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서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한문학에 대한 연구 초석이 놓여졌다. 이어서 일부 연구자들이 서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한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⁵⁾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간도 전 지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서간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북간도 지역은 1910년 경술국치 후 국외 독립운동기지가 가장 먼저 건설된 지역이다. 따라서 서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숫자보다는 적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북간도로 망명을 떠난 유교지식인의 숫자는 분명 적지 않았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에

-
- 1) 정경주, 「20세기초 西間島 亡命 文學의 한 斷面 : 大訥과 守坡의 경우」, 『文化傳統論集』 2집, 1994.
 - 2) 이희목, 「耕齋 李建昇의 시와 ‘西行別曲」, 『이건창 문학연구』, 대동문화연구원, 2005; _____, 「大訥 盧相益의 亡命生活과 遺民詩」, 『漢文學報』 19집, 2008; _____, 「小訥 盧相稷 漢詩 研究 : <辛亥記行>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17집, 2007.
 - 3) 호광수, 「이건승의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中國人文科學』 34집, 2006.
 - 4) 윤호진, 「西川 趙貞奎의 삶과 詩世界」, 『한암의 인물과 학문 (I)』, 함안군·함안문화원, 도서출판 솔이, 2010.
 - 5) 이은영, 「20세기 초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연구 -서간도 망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2; _____, 「大訥 盧相益의 亡命 意義 研究 -獨立有功者 指定과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 제37집, 2013; _____, 「大訥 盧相益의 生涯와 思想」, 『국제언어문학』 제32호, 2015; _____, 「大訥 盧相益의 『幼孫須知』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제41집, 2015; _____, 「大訥 盧相益의 著述 概略」, 『대동한문학』 제44집, 2015; _____, 「松隱 安昌濟의 西間島 亡命詩 研究」, 『大東漢文學』 제41집, 2014; _____, 「수파 안효제의 서간도 망명과 우국시」, 『漢文學報』 제25집, 2011; _____, 「伊山 芮大儁의 西間島 亡命과 憂國詩」, 『한문학보』 제27집, 2012; 조준희, 「박은식의 서간도 망명기 저술 소고」, 『선도문화』 14집,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6) 황민호, 「1910년대 만주지역 한인 사회의 동향과 한인의 만주이주」, 『승실학사』

대한 선행연구는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의 한시에 대한 연구 3편⁸⁾과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의 한시에 대한 연구가 1편⁹⁾ 있을 뿐이다. 이는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이 극히 드물고, 설령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남긴 한문학 자료 또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에 대한 연구 지평을 열어 주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한문학 자료 실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본 텍스트는 한국역대문집총서 DB 목록에 실린 3,998개의 목록 가운데 대한제국기의 1,129개, 일제강점기 84개의 자료를 합친 총 1,213개를 기저로 한다. 그밖에 기타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을 포함한다. 이때 북간도 지역에서만 망명생활을 했던 인물 뿐 아니라, 일정기간 북간도에서 망명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인물까지 아우르도록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1,213개의 문집에 실린 저자의 행장과 문집에 실린 작품 제목 등을 통해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후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으로 파악된 인물에 대한 생몰년, 자(字), 호(號), 이명(異名), 망명시기, 망명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주고자 한다. 이때 다양한 각도에서 자료를 찾는데 집중하여 그들이 한문으로 남긴 자료의 실태와 소장처를 밝혀줄 것이다. 그와 함께 그들에 대한 선행 연구의 진척 사항을 살펴보

제25집, 2010, 126쪽 참조.

- 7) <독립신문>(1919.10.02) 기사 「日人の 間島同胞觀」 “北間島總領事 鈴木要太郎氏は 語하되 間島에는 朝鮮合併 當時에 亡名한 兩班이 不少하여 此等 知識階級이 排日運動의 牛耳을 執하고 其他 二十四五萬의 朝鮮人は 大개 生活困難으로 移住한 者라”(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http://search.i815.or.kr/2016.12.27>).
- 8) 김윤규, 「20세기 초 漢詩의 文學사적 성격 試論 : 石洲詩의 경우를 중심으로」, 『東洋禮學』 제17집, 2007; 신두환, 「石洲 李相龍의 漢詩 研究」, 『漢文學論集』 제33집, 2011; 호광수, 「석주 이상룡의 망명 한시 텍스트와 상황성」, 『中國人文科學』 제31집, 2005.
- 9) □□□, 「백산 시초(白山詩抄)」(안희제), 『나라사랑』 제19집, 외솔회, 1975.

고자 한다.

Ⅱ. 자료 실태 고찰

한국역대문집총서 DB 목록 가운데 대한제국기(1,129개)와 일제강점기(84개) 자료를 합친 총 1,213개의 문집을 대상으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를 통해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자료로 파악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때 북간도에서만 정착해서 망명생활을 한 유교지식인의 자료 뿐 아니라 북간도에서 일정기간 망명생활을 한 유교지식인의 자료들도 포함하였다. 이유는 북간도에만 정착해서 망명생활을 한 인물보다는 독립운동을 위해 노령(露嶺), 서간도, 상해, 북경 등지를 전전하며 망명생활을 이어간 인물들이 많고, 또 타 지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중 여러 이유로 북간도에서 망명생활을 한 유교지식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간도에서 일정기간 이상 망명생활을 한 유교지식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인물이 한문으로 남긴 자료 가운데 문집은 물론 편지글이나 서문(序文), 편찬서 등 현존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시켰다. 이유는 그들이 남긴 문집을 연구하는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자료도 포함시켰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사 정도만 한글로 국문으로 쓰이고 중요한 부분은 모두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생몰년	자	호	이명	망명 시기	망명지
1	김교현 (金敎獻)	1868~1923	백유 (伯猷)	무원 (茂園)	김보화 (金普和)/ 김헌 (金獻)	1917	북간도 화룡현 (和龍縣)/ 노령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신단실기(神檀實記)』 / 국한문혼용 52장				국립중앙도서관		학술논문10)
『신단민사(神檀民史)』 / 국한문혼용 1책				국립중앙도서관			
2	김만식 (金萬植)	1866~ 1933	형일 (亨一)	근암 (槿庵)	김형일 (金亨一)	1910	서간도/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만시(輓詩) 1수				금요고서방 (http://www.kumyo.co.kr)		논문 없음
노림(魯林)에게 보낸 간찰				한국학자료 영남권역센터			
3	김약연 (金躍淵)	1868~1942		규암 (圭巖)	김명군 (金君明)		북간도 화룡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편찬서 김봉해(金鵬海)의 『운당집(韻堂集)』(4권 3책)				국립중앙도서관		학술논문11)	
4	김영근 (金永根)	1865~1934	내회 (乃晦)	경희 (景晦)/ 죽산 (竹山)/ 천대 (天台)		1906~ 1907, 1913~ 1914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경희집(景晦集)』 / 본래 문집은 6.25 때 유실한 후 1987년 약 1,000여 편의 흩어진 시를 모아 아세아 문화사에서 영인 ¹²⁾				국립중앙도서관		학술논문13)	
5	김정규 (金鼎奎)	1881~1953		용연 (溶淵)/ 용연 (龍淵)		1909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야사(野史)』(일명 『용연 김정규 일기(龍淵金鼎奎日記)』) / 17권 18책				독립기념관		학위논문14) 학술논문15)	

	『항산유고(恒山遺稿)』 / 3책, 『항산이언(恒山俚言)』 / 총 3권 중 제2권만 현 존16)17)			독립기념관			
	편찬서 『계림가승완산유록합편(鷄林家乘完山遺錄 合編)』 / 家乘을 모은 계림가승과 개인의 기록을 모은 완산유록을 구분하였다가 뒤에 합편한 것임 ¹⁸⁾			독립기념관			
6	안창제 (安昌濟)	1866~1931	중양 (仲陽)	송은 (松隱)/ 송와 (松窩)		1910	서간도/ 북간도 만보산 (萬寶山)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송은유고(松隱遺稿)』 / 3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1893년 10월 19일 간찰			국립중앙도서관		학술논문 ¹⁹⁾	
1917년 노상직(盧相稷)에게 보낸 간찰			부산대학교				
7	안희제 (安熙濟)	1885~1943		백산 (白山)		1911~ 1914, 1933~ 1942	노령/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백산시초(白山詩抄)』 / 시 32수			장석신(張錫薰)의 『남유 록(南選錄)』(경상대학교 소장)에서 안희제의 시 32수만 선정한 작품 ²⁰⁾		학위논문 ²¹⁾ 학술논문 ²²⁾	
	안창제(安昌濟)에게 보낸 간찰			백산기념관			
편찬서 이규준(李圭峻)의 『석곡심서(石谷心書)』 (54쪽)			국립중앙도서관				
8	염석진 (廉錫珍)	1879~1956	자익 (子翊)	남곡 (南谷)	염석진 (廉錫珍)	수년간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남곡유고(南谷遺稿)』 / 2권 2책			국립중앙도서관		논문 없음		
9	위봉식 (魏棒植)	1863~1943	대인 (大彦)	홍의재 (弘毅齋)		1906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최익현(崔益鉉)과 주고받은 간찰 6편 ²³⁾			국립중앙도서관		논문 없음		
10	유완무 (柳完茂)	1862~1909		백초 (白樵)/ 백산	유인무 (柳寅茂)/ 유인무	1905	노령/ 북간도 등

			(白山)/ 초부 (樵夫)	(柳仁茂)/ 유안무 (柳安茂)/ 유완무 (柳完懋)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간찰			국가보훈처		학술논문 ²⁴⁾	
	김노규(金魯奎)의 편찬서 『북여요선(北興要選)』의 서문(序文)			국립중앙도서관			
	윤복영 (尹復榮)	1868~1969		화전 (樺田)	윤주영 (尹胄榮)	1913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11	편찬서 『반계정선부인문경험방(潘溪精選婦人門經驗方)』(1책 80장)			국립중앙도서관		논문 없음	
	『성정근초(聲定謹抄)』 / 1,2호 ²⁵⁾			독립기념관			
	『자하음청(紫霞陰晴)』 / 현존 6,7,8,9집 ²⁶⁾			독립기념관			
12	이상룡 (李商龍)	1858~1932	만초 (萬初)	석주 (石洲)	이계원 (李啓元)/ 이상희 (李象羲)	1911	서간도/ 북간도/ 노령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석주유고(石洲遺稿)』 / 6권 6책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²⁷⁾ 학술논문 ²⁸⁾	
13	이상철 (李相尙)	1870~1917	순오 (舜五)	부재 (溥齋)		1906	북간도/ 상해/ 노령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산술신서(算術新書)』 / 국한문혼용 2책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²⁹⁾ 학술논문 ³⁰⁾	
14	이승희 (李承熙)	1847~1916	계도 (啓道)	강재 (剛齋)/ 대계 (大溪)/ 한계 (韓溪)	이대하 (李大夏)	1908	노령/ 북간도/ 서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 / 본집 36권 16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학위논문 ³¹⁾	

	책, 속집 6권 3책 『정몽유어(正蒙類語)』 / 1책(33장) 『몽어유훈(蒙語類訓)』 / 1책(34장)			데이터베이스		학술논문 ³²⁾	
	『한계려어(韓溪旅語)』 / 1책			독립기념관			
	호(號)가 용호(龍湖)인 인물에게 보낸 간찰			독립기념관			
	하계효(河啓濤)에게 보낸 수연시(壽宴詩)			진주 단목 진양하씨 단지 종택			
	『성산향약(星山鄉約)』 / 21장			영남대학교			
	간찰 3점 / 수신자 미상 1점, 수신자 정(鄭) 생원(生員) 2점			금요고서방 (http://www.kumyo.co.kr)			
	15	장유순 (張裕淳)	1877~1952	호문 (浩文)	야은 (野隱)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재판(裁判)에 관(關)한 법률(法律)』 / 국한문혼용 1책(152쪽)			국립중앙도서관		논문 없음		
16	정영택 (鄭永澤)	1873~1947	안립 (安立)/ 성장 (性長)	원경 (原敬)	정안립 (鄭安立)	1910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천문학(天文學)』 / 국한문혼용 1책(240쪽)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 ³³⁾ 학술논문 ³⁴⁾	
17	정재면 (鄭載冕)	1884~1962		벽거 (碧居)/일 광 (一光)/ 우산 (雨山)	정병태 (鄭秉泰)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1911년 안창호에게 보낸 간찰			다음 블로그 ³⁵⁾		학술논문 ³⁶⁾	
18	조성환 (曹成煥)	1875~1948		청사 (淸簑)	조옥 (曹煜)	1908	북경/ 연해주/ 북간도
	한문자료			소장처		비고	
	안창호에게 보낸 국한문 혼용 간찰			독립기념관		학위논문 ³⁷⁾	
	노상직(盧相稷)에게 보낸 간찰			부산대학교		학술논문 ³⁸⁾	

〈표 1〉 〈현존 한문 자료 실태〉

- 10) 조항래, 「김교헌(金敎獻)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京畿 史學』 8집, 2004; 박광용, 「대종교 관련문헌에 위작 많다2 : 『신단실기』와 『단기고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 16집, 1992; 박영석, 「대종교(大宗教)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 관한 연구 : 김교헌(金敎獻) 교주(敎主) 시기(時期)를 중심으로」, 『사총』 21권, 1977; 한영우, 「1910年代의 民族主義의 歷史敍述 : 李相龍·朴殷植·金敎獻·《檀奇古史》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1집, 1980.
- 11) 서정민, 「인물로 본 한국 기독교사 8 : 선구자 김약연(金躍淵)」, 『한국기독교사 연구회소식』 제8집, 1986; 정경호, 「일제하 북간도 지역의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 김약연 목사의 신앙삶 연구」, 『신학과 목회』 제27집, 영남신학대학교, 2007.
- 12)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북간도 항일 망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49호, 2014, 44쪽 참조.
- 13)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북간도 항일 망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49호, 2014; 최신희, 「景晦의 詩世界 — 斥邪衛正의 側面에서」, 『성심어문논집』 제7권, 1983; 황민선, 「경희(景晦) 김영근(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전원을 표현한 시어(詩語) 사용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2권, 2016.
- 14) 김건실, 「金鼎奎(1881~1953)의 민족운동과 역사인식」,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13.
- 15)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한국 근현대사 연구』 67집, 한국 2013; 김해영, 「용연 김정규의 교육사상 연구」, 『教育思想研究』 제27집, 2013; _____, 「용연 김정규의 북간도 교육활동 해제」, 『인격교육』 제7집, 2013; 우경섭, 「한말 두만강 지역의 유학자들 : 金魯奎와 金鼎奎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2집, 2014; 윤병석, 「龍淵 金鼎奎의 生涯와 野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1991.
- 16)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3, 592쪽 참조.
- 17) 독립운동가 문건류 해제
(<https://search.i815.or.kr/OrgData/html/IndeHeje/KimJungKyu.html/2016.12.27>) 참조.
- 18)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592쪽 참조.
- 19) 이은영, 「松隱 安昌濟의 西間島 亡命詩 研究」, 『대동한문학』 41집, 2014.
- 20) □□□, 「백산 시초(白山詩抄)」(안희제), 『나라사랑』 제19집, 외솔회, 1975, 139쪽 참조.
- 21) 장열이, 「白山 安熙濟의 民族主義 敎育思想」,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02; 지호원, 「백산 안희제의 민족교육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89.
- 22) 강대민, 「白山 安熙濟의 大東靑年團運動」, 『論文集』 제18집, 경성대학교, 1997; 김동환, 「白山 安熙濟와 大宗教」, 『국학연구』 제5집, 2000; 金峻憲, 「大韓民國臨時政府의 聯通制와 怡隆洋行 : 白山 安熙濟의 關聯活動側面에서」, 『社會科學研究』 제4집, 1984; _____, 「白山 安熙濟의 史跡年譜」, 『민족문화논총』 제5집, 1984; 박부전, 「제2장 백산 안희제의 사생관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9집, 2015; _____, 「제4장 백산 안희제의 구국활동과 민족사상의 내용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9집, 2015; 안경홍, 「백산 안희제(安熙濟)와 의녕(宜寧)」, 『한글한자문화』 제 76호,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5; _____, 「한글+한자문화 칼럼 : 백산 안희제와 의녕(宜寧)(2)」, 『한글한자문화』 제77집,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5; 오미일, 「일제시기 백산상회(白山商會)의 창립과 변천」, 『嶺南學』 제26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_____, 「일제시기 안희제의 기업활동과 경제운동」, 『국학연구』 제5집, 2000; 이귀원, 「백산 안희제의 삶과 ‘백산정신」」, 『文化傳統論集』 제14집, 2007; 이달우, 「白山 安熙濟의 教育活動」, 『學生生活研究』 제17집, 1988; 이동언, 「白山 安熙濟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_____, 「安熙濟의 教育救國運動」, 『국학연구』 제5집, 2000; 이순옥, 「백산 안희제의 매체 투쟁과 『자력(自力)』」, 『역사와 경계』 제99집, 부산경남사학회, 2016; 정경환, 「제1장 백산 안희제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9집, 2015; 정진석, 「白山 安熙濟의 中外日報를 통한 抗日言論」, 『국학연구』 제5집, 2000;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대비 : 역사가 숨쉬는 공간 14 ; 독립운동 활동 네트워크 중심의 안희제 선생을 만나다 -백산기념관」, 『통일한국』 제280집, 평화문제연구소, 2007.

* □□□, 「백산 시초(白山詩抄)」(안희제), 『나라사랑』 제19집, 외솔회, 1975.

- 23)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위봉식(魏棒植)이 최익현(崔益鉉)에게 보낸 편지가 총 6편이 소장되어 있다. 1887년 2월 23일, 1890년 8월 8일, 1891년 1월 26일, 1892년 1월 19일, 1892년 6월 17일, 그리고 1893년에 보낸 편지.
- 24) 이희환, 「백초 유완무의 생애와 민족운동」, 『인천학연구』 10집, 2009.
- 2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자료번호: 1-000636-001; 1-000636-002 (<https://search.i815.or.kr/2016.12.27>.)
- 2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자료번호: 1-000635-000 (<http://search.i815.or.kr/2016.12.27>.)
- 27) 김동호, 「石洲 李相龍의 思想과 教育實踐」,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0; 남인령, 「石洲 李相龍의 國權恢復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 28) 강윤정, 「난세의 지식인 석주 이상룡의 공부」, 『안동학연구』 제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14; 권병혁, 「석주 이상룡의 생애와 사상」, 『안동사연구』 제3집, 1989; 김윤규, 「20세기 초 漢詩의 문학사적 성격 試論 : 石洲詩의 경우를 중심으로」, 『東洋禮學』 제17집, 2007; 박영석, 「石洲 李相龍 研究 : 臨政 國務領選任背景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제89집, 1981; 박원재, 「석주(石州) 이상룡(李相龍)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 - 정재(定齋)학파의 유교개혁론(1)」, 『오늘의 동양사상』 제11집, 예문 동양사상연구원, 2004; _____, 「후기 정재학파의 사상적 전회의 맥락 -이상룡과 유인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58집, 2007; 변창구, 「제3장 석주 이상룡의 선비정신과 구국운동」, 『민족사상』 제18집, 2014; 신귀현, 「석주(石州)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서양철학 수용과 그의 개혁사상」, 『철학』 제63집, 2000; 신두환, 「石洲 李相龍의 漢詩 研究」, 『漢文學論集』 제33집, 2011; 안건호, 「1910년 전후 이상룡의 활동과 사회진화론」, 『역사와 현실』 제29집, 한국역사연구회, 1998; 윤순갑·김명하, 「석주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 국가주의」, 『大韓政治學會報』 제12집, 2004; 임종진, 「石洲 李相龍의 「孔教微旨」에 대한 분석」, 『哲學論叢』 제44집, 새한철학회, 2006; 호광수, 「석주 이상룡의 망명 한시 텍스트와 상황성」, 『中國人文科學』 제31집, 2005.
- 29) 심우준, 「溥齊李相高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78; 윤병석, 「李相高研究 : 國外獨立運動 基地設定的 活動을 中心으로」, 崇田大學校 석사논문, 1982.
- 30) 박걸순, 「이상설(李相高)의 민족운동(民族運動)과 후인(後人) 논찬(論贊)」, 『중원문화연구총서』 10집, 2006; 박성래, 「역사속 과학인물-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수학자 이상설(1870~1917)」, 『과학과 기술』 31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8; 박민영, 「국치 전후 李相高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집, 2007; 박영민, 「수학자 이상설이 소개한 근대자연과학: <식물학(植物學)>」, 『수학교육논문집』 25집, 2011; 설한국·이상구, 「이상설 :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 『한국수학사학회지』 22집, 2009; 손용근·김채식 외,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 李相高이 쓴 19세기근대화학 강의록 『화학계몽초(化學啓蒙抄)』」, 『한국수학논문집』 20집, 강원경기수학회, 2012; 윤병석, 「李相高의 遺文과 李儻·張仁煥·田明雲의 義烈」, 『국독립운동사연구』 2집, 1988; 이동길, 연해주 이상설 선생의 유적답사기 『농업기술회보』 45집,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8; 이상구·박종윤 외, 「수학자 보재 이상설(李相高)의 근대자연과학 수용 - 『백승호초(百勝胡州)』를 중심으로-」, 『수학교육논문집』 27집, 2013; 이상구·홍성사 외, 「이상설(李相高)의 산서 수리(算書 數理)」, 『한국수학사학회지』 22집, 2009; 이용조, 「이상설(李相高)생가(生家) 복원에 관한 고찰」, 『湖西 文化 研究』 9집, 1990.
- 31) 김성우, 「韓溪 李承熙의 教育, 社會思想 研究韓末, 儒學教育 研究의 一環으로」, 延世大學校 석사 논문, 1979; 여기철, 「韓溪 李承熙의 漢文教材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9; 유준기, 「韓溪 李承熙의 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81.
- 32) 금장태, 「한계 이승희의 생애와 사상(1)」, 『大東文化研究』 제19집, 1985; 김근호, 「寒洲學派의 心卽理說 批判에 대한 再批判의 論究 : 이승희·허유·곽종석·김항 등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43집, 2011; 김기승, 「한계 이승희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 유교적 반전평화론에 기초한 독립운동 사례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0집, 2007; 김종석, 「한계 이승희의 공자교운동과 유교개혁론 문제」, 『哲學論叢』 제38집, 새한철학회, 2004; 왕원주, 「1910년대 전반기 韓溪 李承熙의 中華사상과 民族인식 : 신해혁명에 대한 중국인 李文治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제103집, 2007; 유준기, 「독립운동기초 한홍동 건설과 독립운동가의 망명 경로 - 이승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2집, 2005; _____, 「韓溪 李承熙의 社會改革思想」, 『論文集』 제23집, 충신대학교, 1986; _____, 「韓溪 李承熙의 社會改革思想 : 그의 星山鄉約 및 柳洞坊約과 大浦義社條約을 中心으로」, 『論文集』 제5집, 충신대학교, 1985; _____, 「韓溪 李承熙의 教育思想」, 『論文集』 제8집, 충신대학교, 1989; _____, 「韓溪 李承熙의 政治思想」, 『論文集』 제3집, 충신대학교, 1983; 이윤갑, 「한말 이승희의 국권회

이상으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현존 한문 자료 실태를 살펴 보았다. 북간도 용정촌의 일본영사관에서 북간도(화룡, 연길, 왕청 3현) 지역 한인 숫자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간도 지역에 한인은 1912년에 14만 3천 명, 1916년에 18만 3천 명, 1918년에 19만 7천 명, 1920년에 23만 2천 명에 달했다.³⁹⁾ 한인들의 대다수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나온 유민(流民)들이 차지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망명 유교지식인의 숫자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1의 자료를 통해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가운데 한문으로 된 자료가 현존하는 경우는 생

복본 연구], 『한국학논집』 제63집, 2016; _____, 「한말 일제초기 이승희의 민족 운동」, 『인문학연구』 제47집, 2013; 정낙찬, 『韓溪 李承熙의 地域社會教育論』, 『교육철학』 제27집, 2005; _____, 「한계 이승희의 지역사회교육론」, 『교육철학』 제27집, 2005; _____, 『韓溪 李承熙의 學教教育論』, 『교육철학』 제25집, 2004; 정병석, 『韓溪 李承熙의 道德的 宗教觀』,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9집, 2010; 최석기, 「俛宇 郭鍾錫의 明德說 論爭 - 李承熙 · 許愈 · 金鎮祐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 『南冥學研究』 제27집, 2009; 홍원식, 「한국 공자교 운동과 이승희」, 『孔子學』 제3집, 1998; _____, 「19세기 ‘洛上’ 退溪學派와 ‘洛中’ 寒洲學派의 分立과 性理論 爭 : 韓溪 李承熙의 ‘條辨’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9집, 2010; 황영래, 『韓溪 李承熙와 海窓 宋基植의 孔教運動의 相異性』,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9집, 2010.

- 33) 박은미, 「개화기 천문학 서적 연구 : 정영택의 『天文學』과 베어드의 『턴문략해』」,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 34) 박은미 · 이용삼, 「개화기 천문학 서적 연구 : 정영택의 “천문학(天文學)”과 W. M. Baird의 “턴문략해”」, 『天文學會報』 34집, 2009.
- 35) 다음 사이트 야촌 이재훈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44Ek&articleno=16144449&bloghome_menu=recentthumb/2016.12.22) 참조. “1911년 11월 25일자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안창호에게 북간도 민족운동상황을 통보한 것이다. 특히 그 무렵 민족 조의교육의 명문 명동학교의 학생수는 180여인, 창동학교의 학생수는 140여인, 소영자 광성학교의 사범 및 중등학생수는 150여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36) 서평일, 「인물로 본 한국 기독교사 15 : 북간도 기독교 민족운동가 정재면(鄭載冕)」, 『한국기독교사연구회소식』 제15집, 1987.
- 37) 양태석, 「청사 조성환의 항일독립운동」,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8.
- 38) 양태석, 「晴簑 曹成煥의 抗日獨立運動」, 『한국 근현대사 연구』 53집, 2010.
- 39) 박성순, 「한청간 間島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東洋學』 第56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4, 91쪽 참조.

각보다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자료가 많이 남겨지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 가운데에는 직접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들이 많았다. 따라서 북간도 한 곳에 정착해 살기보다 노령, 서간도, 북경, 상해 등지를 전전하느라 생활반경이 넓어서 자료 유실이 쉬웠기 때문이다.

둘째, 글을 지었다 하더라도 북간도 용정촌의 조선통감부가 용정파출소 등의 인력을 동원해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 등이 온전히 남겨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이 손수 자신의 작품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이상설이 사후 자신의 명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원고를 불사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⁴⁰⁾

넷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이 남겨둔 자료는 문집으로 간행되기보다 필사본이나 낱장으로 남겨진 사례가 많아 자료 유실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다섯째, 남아 있는 자료들 또한 광복 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곳에 살고 있던 후손들 가운데 귀국한 사람은 이동하는 중에, 또는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서 전반적인 한문학에 대한 관심의 저하와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는 후손들, 또는 환국한 후손들 또한 영락하거나 한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선조들이 남긴 자료 유실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40) 정인보(鄭寅普), 『舊園鄭寅普全集』,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舊園文錄』1, 「溥齋李公既沒, 余擬爲立傳, 苦遺事無述, 見聞之訪又阻. 歲久寢忘, 今之人罕有舉其名者矣. 撫事懷故, 彌慟云亡. 聊作古詩一篇, 奉示恥齋松居兩世丈, 求并有賦. 庶幾流茲感慨, 不終落莫, 他日採掇粗具, 當卒爲傳之.」 207쪽.

이상의 이유 등으로 오늘날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자료를 찾아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한문학 자료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현존하는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자료가 희귀본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집총서와 그 밖의 자료를 통해 간도 지역으로 망명을 갔고, 한문 자료가 현존하는 데도 불구하고, 망명지가 정확히 북간도인지 서간도인지 확인이 안 되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망명지를 밝혀줄 것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었다.

박승진(朴勝振, 1853~1930)의 초명은 박영진(朴泳振)이고, 자는 치옥(樾玉)이고, 호는 청하(聽荷)이다. 1912년 만주로 망명을 간 사실이 확인된다. 현존 자료로 『청하집(聽荷集)』⁴¹⁾과 소장처 불명의 『춘추대사고의(春秋大事考疑)』, 『강목목차(綱目目筭)』, 『송명말충의록(宋明末忠義錄)』, 『국조총론(國朝總論)』, 『구야록(求野錄)』, 『초학수지(初學須知)』 등⁴²⁾이 있으며, 신필성(申弼成)의 『여봉유고(廬峰遺稿)』 서문(序文), 그리고 전규병(全奎炳)의 『우엄유고(愚廣遺稿)』, 김휘철(金輝轍)의 『수산문집(睡山文集)』, 송정흠(宋程欽)의 『송고집(松皋集)』 등의 발문(跋文)을 쓴 사실이 확인된다.

박영묵(朴永默, 1845~1916)의 호는 양암(陽巖)이고, 이명은 박성묵(朴性默)·박영묵(朴泳默)이다. 1914년 만주로 망명을 떠났으며, 간찰 1편⁴³⁾이 있다. 독립유공자이다.

위석규(魏錫奎, 1882~1913)의 자는 여장(汝章)이고, 호는 덕암(德菴)이다. 1906년 만주로 망명을 떠났다. 그밖에 노령에서도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⁴⁴⁾ 『덕암유고(德菴遺稿)』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독립유공자이다.

41) 유교넷(<http://www.ugyo.net/2016.12.28>)의 영남사림문집 참조.

42) 유교넷(<http://www.ugyo.net/2016.12.28>)의 『청하집』 해제 참조.

43) 금요고서망(<http://www.kumyo.co.kr/2016.12.22>)의 박영묵 간찰 참조.

44) 한국역대인물통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2016.12.22>)의 <위석규> 참조.

이기손(李起巽, 1877~1937)의 자는 안식(安植)이고, 호는 금재(錦齋)·연해(淵海)·용섭당(龍攝堂)이며, 이명은 이준수(李準水)이다. 한학을 익혔으며, 20세 때 이미 역리·천문·지리에 통달하였고, 망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915년까지 만주를 비롯해 러시아와 연해주에서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⁴⁵⁾ 한문 자료로는 1909년 내부경무국장(內部警務局長) 송정무(松井茂) 앞으로 보낸 간찰 「기유(己酉) 삼월(三月) 구일(九日) 의성(義生) 이기손(李起巽) 배상(拜上)」 1편이 있다.⁴⁶⁾ 독립유공자이다.

조성민(趙成珉, 1879~1952)의 자는 건함(建咸)이고, 호는 심산(心汕)이다. 1910년 상해로 망명을 떠났으며, 그 후 만주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한문 자료로는 『심산유고(心汕遺藁)』가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한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망명지가 확인이 안 되는 간도 지역 망명 유교지식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위에 거론된 5명의 인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정확히 망명지가 북간도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연구 지평이 열릴 것이다. 특히 박승진의 경우 자신의 문집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문집의 발문을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저서도 여러 권 확인되고 있다. 비록 그가 북간도에서 망명생활을 한 것은 1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연구 대상 우선순위 인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만약 서간도 망명자로 밝혀지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대상 인물이 될 것이다. 또 위석규·조성민의 경우 각자의 문집을 남겼다. 그밖에 박영묵과 이기손 등은 호(號)를 가지고 있고, 편지글 등을 한문으로 남겼다. 이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한문을 익히고 사용한 인물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은 망명지에서 한문으로 된 개인문집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

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이기손> 참조.

46)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2016.12.27>)의 「己酉三月九日義生李起巽拜上」 참조.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권 의병편Ⅶ (二)五月, 全羅道)

직까지 개인문집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집 발굴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재 문집총서 외의 자료를 통해 북간도로 망명을 간 사실이 확인되고, 연령이 높고 호가 있어서 한학을 익힌 유교지식인으로 파악이 되는 인물, 또는 연령이 낮아도 생애를 통해 한학을 익힌 정황이 확인되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학을 익힌 만큼 망명지에서 한문으로 된 자료를 남겼을 확률이 높다. 이처럼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한문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가 찾아질 것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두었다.

강우규(姜宇奎, 1855~1920)의 자는 찬구(燦九)이고, 호는 일우(日愚)이다. 한학에 전념하다가 1911년 망명을 떠났으며, 북간도 길림성과 노령 등지를 편답한 후 길림성 요하현(遼河縣)에서 동광학교를 설립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만주와 노령 등지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⁴⁷⁾ 독립유공자이다.

김동삼(金東三, 1878~1937)의 자는 한경(漢卿)이고, 호는 일송(一松)이며, 이명은 이궁식(李肯植)이다. 망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920년 지청천(池靑天)과 함께 소속 부대가 옮겨온 북간도 안도현(安圖縣)에서 활약한 사실이 확인된다.⁴⁸⁾ 독립유공자이다.

김준택(金俊澤, 1865~1935)의 호는 보안(普安)이고, 이명은 김보안(金輔安)·김보안(金保安)이다. 1915년 망명을 떠나 북간도 길림성 이통현(伊通縣) 고유수(孤楡樹)에서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⁴⁹⁾ 독립유공자이다.

박찬익(朴贊翊, 1884~1949)의 자는 정일(精一)이고, 호는 남파(南坡)이며, 이명은 박정일(朴精一)·박순(朴純)·박창익(朴昌益)·복정일(溥精一)·

4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강우규> 참조.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김동삼> 참조.

49)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김준택> 참조.

복순(濮純)이다. 1910년 경술국치 후 북간도로 망명을 떠나 그곳에서 대종교(大宗教)에서 활약한 사실이 있으며, 1912년에는 화룡현(和龍縣) 삼도구(三道溝) 청파동(靑坡洞)에 한인학교를 설립하여 애국사상을 고취 시킨 사실과 길림에서 조소양(趙素昴)·여시형(呂時亨)·김좌진(金佐鎭) 등 39인 명의로 대한독립의용군(大韓獨立義勇軍)을 조직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⁵⁰⁾ 독립유공자이다.

백순(白純, 1864~1937)의 자는 경중(敬中)이고, 호는 은계(隱溪)이며, 이명은 백낙현(白樂賢)·백준(白俊)·백낙현(白洛鉉)이다. 망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간도에서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914년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局子街) 간민회(墾民會) 총무회장(總務會長) 및 총회장(總會長)으로 활동한 사실을 비롯해 1921년 12월 길림성 화룡현에서 36개의 독립군단을 통일하여 조직된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에서 고문(顧問)으로 활동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⁵¹⁾ 독립유공자이다.

손일민(孫逸民, 1884~1940)의 호는 회당(晦堂)이고, 이명은 손일민(孫一民)이다. 망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918년 북간도 길림성에서 39인의 서명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할 때 그 중 1인으로 활동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⁵²⁾ 독립유공자이다.

신팔균(申八均, 1882~1924)의 호는 동천(東川)이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간도로 망명을 떠났으며, 북간도를 비롯해 서간도, 노령, 북경, 상해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⁵³⁾ 독립유공자이다.

유예균(劉禮均, 1884~?)의 호는 쾌복(快福)이다. 망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간도에서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919년 2월 중국으로 건너온 고평(高平, 1886~?)과 함께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 박동원(朴東轅)의 집에서 구춘선(具春先)·김영학(金永學) 등과 함께 광복단을

50)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박찬익> 참조.

51)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백순> 참조.

52)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손일민> 참조.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신팔균> 참조.

조직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⁴⁾

이갑(李甲, 1877~1917)의 호는 추정(秋汀)이고, 이명은 이휘선(李彙璿)이다. 1910년 망명을 떠나 북간도를 비롯해 서간도, 노령에서 망명생활을 하였으며, 북간도 밀산부(密山府)에 무관학교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⁵⁾ 독립유공자이다.

이동녕(李東寧, 1869~1940)의 자는 봉소(鳳所)이고, 호는 석오(石吾)·석오(石五)·석오(石梧)·암산(巖山)이다. 1906년 북간도로 망명을 떠나 용정촌(龍井村)에서 이상설(李相畵)·정순만(鄭淳萬) 등과 함께 서전의숙(瑞甸義塾) 설립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⁶⁾ 1907년 환국한 후 1911년 서간도로 망명을 떠났으며, 그밖에 노령, 상해 등지에서도 망명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이다.

이동춘(李同春, 1872~1940)의 호는 우화(雨華)이다. 1909년 망명을 떠나 북간도에서 망명생활을 했다. 북간도 연길 도윤공서(道尹公署) 외교부(外交部)에서 근무하였으며, 북간도 용정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였다.⁵⁷⁾ 독립유공자이다.

이동휘(李東輝, 1873~1935)의 호는 성재(誠齋)·성재(城齋)이고, 이명은 이독립(李獨立)·이성제(李誠齋)·이각민(李覺民)이다. 1912년 북간도로 망명을 떠나 소영자(小營子)에 광성학교(光成學校)를 세웠다.⁵⁸⁾ 그밖에 노령과 상해 등지에서도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독립유공자이다.

이봉희(李鳳羲, 1868~1930)의 자는 덕초(德初)이고, 호는 척서(尺西)이며, 이명은 이계동(李啓東)·이상훈(李相勳)·이상희(李相熙)·이경식(李京植)·이기동(李基東)이다. 1911년 서간도로 망명을 떠났다. 후에 북간도

54)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http://sajeok.i815.or.kr/2016.12.22>)의 <고평 집터> 참조.

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이갑> 참조.

56)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이동녕> 참조.

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이동춘> 참조.

58)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이동휘> 참조.

흑룡강성 탕원현(湯源縣) 오동하서(梧桐河西)에서 농토개척사업에 매진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⁹⁾ 독립유공자이다.

임병극(林炳極, 1885~?)의 호는 중송(中松)이며, 이명은 임병운(林秉允)이다. 1917년 망명을 떠났으며, 1919년과 1920년에 북간도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군사령부(軍司令部) 제2중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독립운동당시 주소가 북간도 안도현(安圖縣) 내도산(內島山)으로 확인되고 있다.⁶⁰⁾ 그밖에 노령, 만주, 상해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독립유공자이다.

정순만(鄭淳萬, 1873~1911)의 호는 검은(儉隱)이며, 이명은 왕창동(王昌東)·왕창도(王昌道)·왕일초(王一初)·왕한(王韓)이다. 1906년 북간도로 망명을 떠나 용정촌에서 이상설·정순만 등과 함께 서전의숙 설립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된다.⁶¹⁾ 후에 노령에서도 망명생활을 하였다. 독립유공자이다.

조동겸(趙東謙, 1863~194?)의 호는 후포(後圃)이다. 1906년 김영근·위봉식과 함께 북간도로 망명을 떠났다.⁶²⁾

조완구(趙琬九, 1881~1952)의 자는 중엽(中琰)이고, 호는 우천(藕泉)이다. 1915년 북간도 용정촌으로 망명을 떠나 3년 정도 대종교에서 활약한 사실이 확인된다.⁶³⁾ 독립유공자이다.

주진수(朱鎭壽, 1875~?)의 호는 송파(松波)·백운(白雲)이고, 이명은 주진수(朱鎭洙)이다. 1912년 망명을 떠났으며, 1926년 북간도 길림성에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망명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⁶⁴⁾ 독립유공자이다.

허겸(許兼, 1851~1939)의 호는 성산(性山)이고, 이명은 허혁(許赫)이다.

5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이봉희> 참조.

60)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임병극> 참조.

61)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정순만> 참조.

62)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북간도 항일 망명」, 66쪽 참조.

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조완구> 참조.

64)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주진수> 참조.

1912년 망명을 떠났으며, 북간도 길림성 통화현(通化縣)에서 중어학원(中語學院)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다.⁶⁵⁾ 1939년 길림성 주하현(珠河縣)에서 생을 마감하였다.⁶⁶⁾ 독립유공자이다.

현천묵(玄天默, ?~1928)의 호는 백취(白醉)이다. 1910년 망명을 떠났으며, 1920년 북간도 길림성 왕청현(汪淸縣) 서대파구(西大波溝)에서 정의단(正義團)을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로 재개편할 때 부총재직을 맡아 활약한 사실이 확인된다.⁶⁷⁾ 독립유공자이다.

홍충희(洪忠熹, 1878~1946)의 호는 우봉(禹峰)이고, 이명은 홍충의(洪忠意)·홍충관(洪忠觀)·홍충헌(洪忠憲)·홍충길(洪忠吉)이다. 망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권동진(權東鎭)을 도운 후 북간도로 망명을 한 사실과 1920년 북간도 길림성 왕청현 서대파구에서 정의단을 북로군정서로 재개편할 때 참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⁶⁸⁾ 독립유공자이다.

이상으로 한문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도 지역에는 경술국치 후 기본적으로 한학을 익힌 양반들이 적지 않게 망명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들은 배일운동의 수뇌부 역할을 하였다.⁶⁹⁾ 그러한 만큼 당시 독립운동에 힘쓴 유교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평생 익힌 한학으로 글을 썼을 것임에 틀림없고, 그에 따라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자료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의 인물들 가운데 강우규·김동삼·이동녕·이동휘 등 대부분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독립운동에 전념하느라고 지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글조차 제대로 수집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추후 지속적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

65)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2016.12.29>)의 <허겸> 참조.

6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허겸> 참조.

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현천묵> 참조.

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2016.12.22>)의 <홍충희> 참조.

69) 각주 7) 참조.

인의 현황 파악과 함께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자료 수집에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이 남긴 자료를 찾아야만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연구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Ⅲ. 연구 방향 모색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남긴 앞 장에서 살펴본 표1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문학 관련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모색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학성을 기본으로 하는 문학적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이다. 두 번째는 문학성보다는 역사 등을 근거로 하는 문학외적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이다. 다만 본고의 연구는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자료에 대한 실태고찰을 바탕으로 한 만큼, 망명 전 작품은 배제하기로 한다. 그리고 망명지, 또는 망명생활 후 환국한 경우는 포함시키도록 한다. 왜냐하면 환국 후의 정서 또한 망명지 정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문학적 연구 방향 모색

첫째, 개인 문집에 대한 연구이다.

『항산유고』·『항산이언』에는 김정규가 1913년 연길현 지인향(智仁鄉) 장산둔(長山屯) 달리동(達理洞)에 집과 토지를 마련하고 그 동네 이름을 따서 항산별서(恒山別墅)라 하고 회양재(回陽齋)를 열었는데,⁷⁰⁾ 이때 남긴 작품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경회집』은 김영근의 문집이다. 『경회집』에는 약 1,000편의 시가 수록

70) 윤병석, 「金鼎奎의 生涯와 『野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1991, 119쪽 참조.

되어 있다.⁷¹⁾ 특히 망명자들이 주로 영남 사람인 것에 반해 김영근이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근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2편⁷³⁾이 있을 뿐이다.

『송은유고』는 안창제의 문집인데 안창제는 서간도로 망명을 떠났지만, 1931년 일제의 간계에 의해 벌어진 길림성 만보산 사건 이후 조선인은 일본인과 한통속이라고 여기게 된 중국인들에 의해 처자(妻子)와 함께 희생되었다.⁷⁴⁾ 안창제가 북간도인 길림성에서 사망한 사실을 미루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북간도에서도 일정기간 망명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연구는 서간도 관련한 연구 1편⁷⁵⁾이 있을 뿐이다.

『남곡유고』는 염석진의 문집으로 간도에 강개한 선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북간도에 가서 몇 년간 망명생활을 하다 한국했다.⁷⁶⁾ 현재까지 염석진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시도된 바가 없다.

『석주유고』는 이상룡의 문집인데, 총 410편의 시제(詩題)가 있는데 그중 망명 생활 중에 읊은 시제는 215편에 달한다. 그리고 「도길림성(到吉林省)」, 「길림제석(吉林除夕)」 등의 작품은 이상룡의 북간도에서의 정서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그밖에 편지글 총 205편을 비롯해 『석주유고』에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의 선행연구는 주로 독립운동과 관련한 것들뿐이고, 한문학 관련 선행 연구는 3편⁷⁷⁾

71) 황민선,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전원을 표현한 시어(詩語) 사용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2권, 2016, 217쪽 참조.

72)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북간도 항일 망명」, 45쪽 참조.

73) 최신희, 「景晦의 詩世界 — 丘邪衛正의 側面에서」, 『성심어문논집』 제7권, 1983; 황민선,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전원을 표현한 시어(詩語) 사용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2권, 2016.

74) 이은영, 「松隱 安昌濟의 西間島 亡命詩 研究」, 『대동한문학』 41집, 2014, 502쪽 참조.

75) 각주 17) 참조.

76) 염석진(廉錫珍), 『南谷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석판본) 卷之四, 「行狀[魏福良] “聞間島多有慷慨之士, 入北數年從遊魏弘毅齋·金農谷·趙後圃諸公, 講討還鄉.”

이 있을 뿐이다.

『한계유고』는 이승희의 문집인데 총 648편의 시제와 총 1,832편의 편지글을 비롯해, 54편의 서문(序文), 39편의 기문(記文), 8편의 논(論) 등 방대한 양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연구는 교육활동, 독립운동, 공교회 관련 종교활동 등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의 한문학과 관련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둘째, 20세기 초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망명 한문학에 대한 연구이다. 첫째에서 살펴본 각 문인들의 망명지 작품을 모두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망명 한문학에 대한 최초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문학외적 연구 방향 모색

첫째, 북간도 망명자들이 쓴 일기에 대한 연구이다.

『야사』(일명 『용연 김정규 일기』)는 김정규의 대표 저서로 1907년부터 1921년 사이의 위국국민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동안 매일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기술한 일기이자 사서(史書)로,⁷⁸⁾ 총 17권 1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사』는 계몽지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계몽지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논찬을 위해 다른 고서와의 대비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자신의 역사인식을 기준으로 분석·비판하고 기사를 선별하여 재배치하였다.⁷⁹⁾ 그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척이 있다.⁸⁰⁾

김영근의 『경희집』에는 저자가 1906년 약 3개월에 걸쳐 강진에서 함경도 갑산(甲山)까지 유람을 다녀오는 동안의 기록인 『원유일록(遠遊日錄)』(건(乾)·

77) 각주 8) 참조.

78) 윤병석, 「金鼎奎의 生涯와 「野史」」, 122쪽 참조.

79)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597쪽 참조.

80)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한국 근현대사 연구』 67집, 2013; 윤병석, 「龍淵 金鼎奎의 生涯와 「野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1991.

곤(坤))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현재는 건권만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과 구국활동을 모색한 정황과 함께 150여 수의 시까지 수록되어 있어 다른 일기류 기록과 차별된다. 당시 김영근의 최종 목적지가 북간도였던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기 좋은 자료이다.⁸¹⁾

『성정근초』와 『자하음청』은 1,2호로 이루어진 윤복영의 일기이다. 『성정근초』⁸²⁾ 제1호는 1927년 7월 19일부터 1930년 7월 15일까지, 제2호는 1930년 8월 15일부터 1930년 12월 3일까지의 간단한 메모 형식의 일기이다. 『자하음청』⁸³⁾은 6,7,8,9집이 현존하고 있다. 7집 표지에는 ‘적계일월(赤鷄日月)’이라고 쓰여 있다. ‘적계(赤鷄)’의 ‘적(赤)’은 남쪽의 적색에 해당되는 것으로 십간(十干)의 정(丁)을 가리킨다. 그리고 닭은 십이지(十二支)의 유(酉)에 해당된다. 따라서 적계는 정유년(丁酉年)을 칭한 말로, 『자하음청』 가운데 최소 7집은 정유년의 기록으로 1957년 1월 1일부터 1964년 1월 1일까지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어 해방 후의 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윤복영의 생애를 비롯해 어떠한 연구도 시도된 바가 없다. 그리고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1,2,3,4,5집이 발굴된다면 북간도 시절 윤복영의 일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기는 일종의 자기 서사이다. 그러므로 일기에 대한 연구는 저자의 일상 등에 대한 생활과 교유를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일기는 당대의 시대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여러 방면에서 좋은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북간도 망명유교지식인들의 외국 인사들과의 교유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룡의 『석주유고』에는 이상룡이 1913년 중화민국 국회에 보낸 편지 「중화민국국회제의회서(中華民國國會提議書)(대유하국민회장작(代柳河國民會長作))」을 비롯해 유하현(柳河縣) 지사(知事)에게 보내는 3편의 편지글

81) 호남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honam.co.kr>/2016.12.27) 김영근의 『遠遊日錄』 해제 참조.

82) 각주 23) 참조.

83) 각주 24) 참조.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승희의 『한계유고』에는 이승희가 1911년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의 총통 원세개(袁世凱)에게 보낸 편지 「여(대)총통원(공)세개(與大總統袁(公)世凱)」를 비롯해 부총통 여원홍(黎元洪)에게 보낸 편지 「여여부총통(원홍)(與黎副總統(元洪))」이 있다. 그리고 손문(孫文) 등에게 보낸 편지 「여손중산(일선)(與孫中山(逸仙))」과 공교회 인사 강유위(康有爲)에게 보낸 편지 「강남해갱생유위(광동인)(康南海更生有爲(廣東人))」에는 대부분 공자의 교를 교과서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밖에 공교회 측에 보낸 글 「통고공교회중문(通告孔教會中文)」 등이 있다. 그 중 이승희의 공교회 관련 연구는 일부 진척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평생 익히고 고수해온 유교 개혁에 앞장선 인물들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모색했다. 이러한 점에서 항일운동에도 투신하고 유학(儒學)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수(保守)할 수 있다고 확신한 김정규가 중국의 공교회운동(孔教會運動)을 받아들이고 유교진흥과 후학양성에 힘쓴 사실⁸⁴⁾ 등을 포함하여, 각 개인이 아닌, 공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역사와 가문에 대한 연구이다. 역사에 대한 책으로는 김교헌이 국한문혼용체로 쓴 『신단실기』와 『신단민사』가 있다. 그 중 1914년에 발행된 『신단실기』는 신화로 전해오는 단군을 민족의 뿌리로 인식하고 지은 책으로 대종교의 역사 경전이라고 불린다. 그에 반해 『신단민사』는 단군조선에서부터 조선의 고종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척이 있다.⁸⁵⁾ 그러나 단독 연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역사서와 함께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84)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590쪽 참조.

85) 박광용, 「대종교 관련문헌에 위작 많다2 : 『신단실기』와 『단기고사』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 16집, 1992; 한영우, 「1910年代의 民族主義的 歷史敘述 : 李相龍·朴殷植·金教獻·《檀奇古史》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1집, 1980.

김정규의 『계림가승완산유록합편』⁸⁶⁾은 김정규가 연길시내로 이사한 1920~1940년대의 기록으로 조상들의 행장과 묘표,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모아 정리한 일종의 자료집⁸⁷⁾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넷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유람 등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룡은 간도에 망명한 후 10년이 지나서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과 우성(又醒) 박용만(朴容滿)이 보내준 여비로 북경을 다녀왔다. 그래서 이상룡은 1920년 12월 20일부터 1921년 4월 27일까지 유람을 하면서 「연계여유일기(燕薊旅遊日記)」를 썼다. 이어서 중국의 정류장 부근의 가볼 만한 고적들을 기록한 「중국차참부변고적가방자속기(中國車站附邊古蹟可訪者續記)」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중국차참부변고적가방자속기」에는 204개 지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부록으로 북경의 금(金)나라 유적지 22개 지역에 대한 것을 「부북경금대유적(附北京金代遺跡)」에 기록으로 남겼다. 당시 이상룡은 여비 문제로 책에 소개한 모든 지역을 직접 둘러본 것은 아니고, 대부분 중국 여행 안내서를 보고 자료를 찾아 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⁸⁸⁾ 다만 이상룡의 「중국차참부변고적가방자속기」는 제목의 ‘속기(續記)’를 통해 다른 글을 이어서 지은 글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조선인이 바라본 중국 관광지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될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북간도로 망명을 떠난 유교지식인이 남긴 자료 실태와 소장처 및 연구 진척 사항 등이 한 자리에 정리되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86) 김건실,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592쪽 각주 6) 참조.

87) 앞의 논문, 592쪽 참조.

88) 안동독립기념관 지음, 『국역 석주유고』(下), 경인문화사, 2008, 95~96쪽 참조.

북간도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한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자료 실태를 고찰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으로 확인된 인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추후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범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속히 명단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그들의 남긴 한문학 자료로 밝혀진 자료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이 남긴 한문학 자료가 희귀본임을 뜻한다. 한국역대문집총서 DB 목록을 근거로 한 만큼, 문집의 자료가 확인된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된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료 발굴 및 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들의 한문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불모지 상태라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개개인에 대한 연구는 물론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전반에 대한 연구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연구가 서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연구와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 후 간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연구로 확대시킨다면, 추후 일본 등지로 망명을 떠난 친일 성향 망명자들과의 차별성 연구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의 한문학 자료 실태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려진 망명유학자들의 자료를 재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모색해본 연구 방향을 기저로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개개인의 문집 및 북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전체를 아우르는 한문학 연구는 물론 문학 외적인 연구에 대한 지평은 충분히 열어주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자료>

1. 원자료

- 金鼎奎, 『野史』(독립기념관).
 _____, 『恒山遺稿』(독립기념관).
 _____, 『恒山俚言』(독립기념관).
 朴勝振, 『聽荷集』(유교넷의 영남사림문집).
 安昌濟, 『松隱遺稿』(국립중앙도서관).
 廉錫珎, 『南谷遺稿』(국립중앙도서관).
 魏錫奎, 『德菴遺稿』(국립중앙도서관).
 尹復榮, 『聲定謹抄』(독립기념관).
 _____, 『紫霞陰晴』(독립기념관).
 李商龍, 『石洲遺稿』(고려대학교).
 李相高, 『算術新書』(국립중앙도서관).
 李承熙, 『韓溪遺稿』(국사편찬위원회).
 _____, 『星山鄉約』(영남대학교).
 _____, 『正蒙類語』(국립중앙도서관).
 _____, 『韓溪旅語』(독립기념관).
 _____, 『訓蒙類語』(국립중앙도서관).
 張裕淳, 『裁判에 關한 法律』(국립중앙도서관).
 鄭永澤, 『天文學』(국립중앙도서관).
 趙成珉, 『心汕遺藁』(국립중앙도서관).
 金萬植, 간찰(한국학자료 영남권역센터).
 安熙濟, 간찰(백산기념관).
 魏棒植, 간찰(국립중앙도서관).

柳完茂, 간찰(국가보훈처).

李承熙, 간찰(독립기념관).

曹成煥, 간찰1(부산대학교).

_____, 간찰2(독립기념관).

2. 간행된 자료

金永根, 『景晦集』, 아세아문화사, 1987.

김영근 저, 『국역 景晦集』, 강진문화원, 2010.

안동독립기념관 지음, 『국역 석주유고』(上, 下), 경인문화사, 2008.

鄭寅普, 『蒼園鄭寅普全集』,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3. 기타 자료

<독립신문>(1919.10.02.)(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https://search.i815.or.kr>)

독립운동가 문건류 해제(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https://search.i815.or.kr>)

유교넷(<http://www.ugyo.net/>)

호남기록문화유산(<http://www.memoryhonam.co.kr/>)

<연구논저>

金建實, 「龍淵 金鼎奎의 저술과 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590~624쪽.

朴杰淳, 「일제강점기 망명인사의 고구려·발해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2004, 435~482쪽.

박민영, 「호남유생 景晦 金永根의 생애와 북간도 항일 망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41~85쪽.

박성순, 「한청간 間島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東洋學』 第56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4, 73~101쪽.

- 윤병석, 「龍淵 金鼎奎의 生涯와 野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113~141쪽.
- 이은영, 「松隱 安昌濟의 西間島 亡命詩 研究」, 『대동한문학』 41집, 대동한문학회, 2014, 495~525쪽.
- 황민선, 「경회(景晦) 김영근(金永根) 한시의 전원인식 -전원을 표현한 시어(詩語) 사용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2권, 한민족어문학회, 2016, 213~244쪽.
- 황민호, 「1910년대 만주지역 한인 사회의 동향과 한인의 만주이주」, 『승실학사』 제25집, 승실사학회, 2010, 115~156쪽.
- , 「백산 시초(白山詩抄)」(안희제), 『나라사랑』 제19집, 외솔회, 1975, 139~152쪽.

Chinese Literary Works Preserved from Confucian Intellectuals Exiled to Norrrth Gando in the Early 20th Century

Lee, Eun-Yo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te of Chinese literary works written by Confucian intellectuals who were exiled to the North Gando reg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Despite the fact that a number of intellectuals were exiled, the identities of only a few are known. There were also only a few remaining Chinese literary works. Until now, studies on these exiled intellectuals have focused on their independence, religion, and educational activity but not on their literary works. These facts provide the key points that can direct subsequent research on Chinese literary works by these intellectuals from literary and non-literary points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is relevant as it lays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udies on Chinese literary works written by Confucian intellectuals exiled to the Norh Gando region.

Key words: Early 20thCentury, North_Gando, Exile, Confucian
Intellectuals, Chinese Literature

필자 E-Mail: nan_gurum@hanmail.net

투고일 2017년 01월 06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1월 26일

* Visiti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